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3 최승구
DEFENDER

14 바로우
FORWARD

15 임형진
DEFENDER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20 델브리지
DEFENDER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힘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25 이범수
GOAL KEEPER

27 김보섭
FORWARD

28 민경현
DEFENDER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37 홍시후
DEFENDER

39 김명순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50 박진홍
MIDFIELDER

66 김세훈
MIDFIELDER

77 박승호
FORWARD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코패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2	인천 : 충북청주	1	인천축구전용
코패	04월 16일 (수) 19:00	2	인천 : 평창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3	인천 : 천안	0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1	부천 : 인천	3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충남아산 : 인천		아산이소신
코패	05월 14일 (수) 19: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12R	05월 18일 (일) 16:30		안산 : 인천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인천 : 전남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인천 : 부천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인천 : 화성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김포 : 인천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인천 : 안산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부산 : 인천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19:00		인천 : 성남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충북청주 : 인천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부천 : 인천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파패럴림픽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GIMPO PREVIEW

‘리그 4연승’ 인천, 김포 상대로 홈 무패 기록 연장한다

글 = 한휘연 UTD기자(by_xayah@naver.com)

리그 선두 자리를 굳히며 다이렉트 승격까지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5월 초 홈에서 김포FC를 맞아 8경기 동안 이어간 '안방 불패' 기록 연장에 도전한다. 인천은 오는 5월 4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김포를 상대로 '하노은행 K리그2 2025'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는 양팀의 리그 첫 맞대결이다.

인천은 리그 9경기 7승 1무 1패(승점 22)로 리그 1위를 수성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특히 점유율(55.52%)과 경기당 득점(1.78)부분에서 각각 리그 1, 2위를 달리며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천은 올 시즌에도 8골로 K리그2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무고사와, 3경기 연속 골을 보여준 이동률(시즌 3골)을 비롯해 9라운드 부천FC 원정서 첫 득점을 기록한 박승호와 제르스, 바로우 등 발 빠른 공격진들이 점유율 우세를 기반으로 빠른 침투와 패스를 활용한 득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현재 리그 9경기 2승 3무 4패(승점 9)로 하위권에 내려앉아 있는 김포는 2020년 K3 시절을 거쳐 2022년 K리그2 합류부터 지금까지 고정운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인천은 오랜만에 K리그2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고, 팀에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오래 녹여낸 상대를 만나는 셈이다.

한편 김포는 장운호와 서재민을 수원FC로 보낸 뒤 겨울 이적시장서 발 빠르게 움직여 2000년생 김지훈과 1998년생 김민식을 충북청주FC에서, 2005년생 김결을 서울이랜드FC에서 영입했다. 2000년생 외국인 미드필더 디자우마까지 합류시킨 김포는 올 시즌 한층 젊은 선수진을 꾸렸다.

김포는 지난 2023시즌 리그 최소 실점 1위, 2024시즌 3위로 '짚물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다. 특히 9라운드 기준 경기당 10.78개로 리그 태클 성공 1위에 올라 있는 만큼, 상대 패스 끊기에 특화됐다. 그러나 지난 8라운드 경남과의 원정 경기서 김포의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채프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며 이번 경기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으로서는 핵심 선수가 빠진 김포 수비진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수적이다.

2023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김포의 K리그1 승격을 가로막은 건 당시 운정환 감독이었다. 고정운 감독의 김포를 이미 상대해 좋은 기억이 있는 운정환 감독이 오랜만에 김포와 재회한 이번 경기서 '짚물 축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한편 리그에서 주로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에서 변형 3-5-2를 활용하는 인천 운정환 감독과 달리, 김포 고정운 감독은 시즌 내내 3-5-2 전술로 출발하고 있다. 선발로 최전방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루이스와, 후반 교체 출전으로 득점에 기여하는 플라나, 우측 날개서 활약하는 김지훈 등이 김포의 주득점원으로 인천 수비진의 경계 대상이다.

9라운드 원정서 3-1으로 부천을 꺾고 홈으로 돌아온 인천, 기세를 몰아 김포전 승리로 홈 무패 9경기 기록 연장하고 리그 5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다이렉트 승격을 위해서는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vs JEONNAM PREVIEW

‘파죽지세’ 인천, 7년 만에 다시 만난 전남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인천이 5월에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상대는 상위권 경쟁 팀 중 하나인 전남드래곤즈다.

K리그2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남은 역사가 깊은 팀이다. 인천과 K리그1에서도 한동안 경쟁했던 전남은 K리그2에 소속됐던 2021년에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전남은 시즌 초 홈 경기장의 잔디 교체 이슈로 인해 원정 경기만 계속 치르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쌓으면서 승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남은 지난 시즌에 비해 주축 전력의 이탈이 적었던 팀이다. 주득점원인 김종민이 충남아산FC로 이적했지만, 하남이나 발디비아 등 위협적인 선수들이 팀에 잔류하면서 타격을 최소화했다. 새 외국인 선수로는 레안드로와 알베르티, 호난이 합류했는데, 이 중 알베르티는 중원의 주전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박대용, 김용환 등 주요 FA 선수들이 재계약을 체결했고, 수비진이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인 스쿼드의 밸런스는 리그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감독으로는 작년에 아산의 돌풍을 이끌었던 김현석 감독이 합류하여 팀을 조직했다.

전남은 올 시즌에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리그 내에서 수위급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편으로, 김경재를 중심으로 한 센터백 라인의 활약이 특히 중요한 편이다. 공격진은 하남, 정강민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노리고, 그 아래에서 정지웅과 알

베르티 역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에이스였던 발디비아가 새 전술에 녹아들지 못했고, 레안드로 역시 기대만큼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공격의 폭발력은 다소 떨어진다. 또한 시즌 초를 계속 원정 경기로 소화했기 때문에 타 구단과 비교했을 때 체력 소모도 큰 편이다.

인천은 전남과 지금까지(컵대회 제외) K리그에서 통산 41경기를 치렀고, 11승 19무 11패를 거두면서 완벽히 대칭되는 성적을 거두었다. 심지어 득점과 실점까지 40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인천과 전남의 마지막 맞대결은 2018년으로, 전남의 K리그1 마지막 상대가 바로 인천이기도 하다. K리그2에서 첫 맞대결을 펼치는 만큼, 양 팀은 남다른 각오로 경기에 임할 전망이다.

전남과 비교했을 때, 인천은 더욱 경기를 장악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인천 역시 후방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더 많이 잡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천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쓰지만, 공격 시에는 3-5-2 내지는 3-4-3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 전남이 세 명의 중앙 수비수를 기용하는 만큼 모든 공격수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수비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는데, 인천이 미드필더 및 공격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조정해서 상대의 전략을 파훼하고 빈틈을 노릴 계획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풀백 김명순과 최승규, 미드필더 문지환과 신진호, 공격수 박승호 등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세부 전술을 보완하고 있다. 인천의 전술 보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천 적응 이상 무!' 이동을
팬들과 함께
K리그 승격하고 싶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인천 유나이티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수가 있다. 팀에 합류하자마자 강렬한 활약으로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는 이동훈이 그 주인공이다. 이동훈은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을 달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인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UTD기자단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이동훈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주전 중거리 골, 권찬수 코치님과의 슈팅 훈련 덕분에

Q. 최근 활약이 좋다. 요즘 몸 상태는 어떤가?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작년에 큰 부상을 당해 조금씩 불편할 때는 있다. 그래서 잘 조절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아픈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고 있다. (인터뷰는 4/26 부천 원정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Q. 인천은 K리그2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팀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날까지 휴일이였다. 그래서 팀 성격에 관해 선수들끼리 깊이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그전까지 계속 팀 분위기가 좋았다. 이 흐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Q. 인터뷰 날 기준으로 현재 리그 3경기 연속 골이다. 6라운드 화성 FC전 발리슛, 7라운드 충북청주전 중거리 슛, 8라운드 천안시티전 썬기 골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득점은 무엇인가?

청주전 중거리 골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득점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유독 기억에 남는다. 또, 요즘 중거리 슛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훈련의 결과물인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었던 득점이다.

Q. 청주전 중거리 골뿐만 아니라 이전 소속팀에서도 난이도 높은 슈팅으로 득점을 여러 번 기록했다. 평소 어떻게 슈팅 실력을 키우는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팀 훈련 끝나고 권찬수 골키퍼 코치님과 슈팅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단순히 많은 슈팅을 시도하기보다는 하나의 슈팅이라도 더 정확하게 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슈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청주전 득점 후에 윤정환 감독이 아닌 권찬수 코치에게 달려간 것도 그 이유인가?

그렇다. 훈련 끝나고 권찬수 코치님이 항상 시간을 따로 내서 도와주신다. 코치님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달려갔다. 득점하면 세리머니로 코치님께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혼자서도 '이렇게 세리머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Q. 윤정환 감독이 서운하다는 말은 안 했는가?

내가 생각해도 감독님이 서운하셨을 것 같다. 그래도 감독님이 서운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으셨다.

Q. 청주전 득점은 김명순의 어시스트였다. 천안전 골은 박호민의 패스가 기점이었다. 경기 종료 후 두 선수와 득점 장면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

천안전에 (박)호민이의 패스로 득점했다. 아쉽게 호민이의 도움으로 기록되지는 못했다. 호민이가 패스할 때 나를 보고 있었다고 생색을 냈다. 자기가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전에는 오히려 (김)명순이가 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명순이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다. 덕분에 도움이 하나 올라갔다고 명순이가 고맙다고 했다.

Q. 공간이 생기면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시도한다는 인상이다. 코치진의 지시인가?

따로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최근에 슈팅 자신감이 붙어서 기회가 나면 자신 있게 시도하고 있다.



힘들어도 응원을 들으면 더 뛰게 된다

Q. 올해 인천에 합류했다. 새로운 팀 적응은 잘 되고 있는가?

경기장 안에서는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다. 형들이 다 잘 도와주신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형들이 그 점을 알고 있는지 먼저 다가와 주신다. 형들에게 감사하다.

Q. 입단 전에 인천 유나이티드에 했던 기대가 있다면 무엇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에 오기 전에는 팀의 응원 문화 등을 잘 몰랐었다. 무조건 승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인천에 왔다. 승격 외에는 다른 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에서 경기를 뛰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팬들의 응원이다. 대단한 응원을 해 주셔서 팬들에게 감사하다.



Q. 7라운드 청주전 직후, 팬들 앞에서 승리 소감으로 '많은 팬 앞에서 뛰는 것이 처음'이라는 말을 했었다. 인천 팬들의 응원을 들으며 뛰는 소감은 어떠한가?

경기를 뛰면 팬들의 응원이 잘 느껴진다. 응원 소리가 크게 들려서 확실한 힘이 된다. 힘들어도 응원을 들으면 한두 발 더 뛰게 된다. 인천 팬들의 응원이 나에게 대단히 큰 힘이다.

Q. 올해 인천은 홈에서 5승 1무를 기록 중이다. 코리아컵 경기까지 포함하면 7승 1무다. 홈 무패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당연히 홈 팬들의 응원이다. 다른 팀과 가장 큰 차이가 우리 팬들이라 생각한다. 인천 팬들의 응원이 상대 팀에게는 가장 힘든 요소이면서 우리 팀에게는 가장 힘이 되는 활력소다. '홈에서는 절대 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선수들이 많이 한다. 그러한 각오로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홈 무패의 원동력이다.



등번호 10번, 부담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Q. 인천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다. 보통 축구에서 등번호 10번은 에이스를 상징한다. 어떤 계기로 등번호 10번을 달게 되었는가?

처음 등번호를 정할 때, 1~3지망 번호 3개를 써서 내라고 하셨다. 원래 17번을 자주 달아서 1지망으로 17번을 썼다. 1지망 번호가 될 줄 알고 2지망에는 복잡한 생각 없이 10번을 적어 냈다. 그런데 (김)성민이가 17번을 받았다. 나에게 10번을 주셔서 지금의 등번호가 되었다.

Q. 10번이라는 등번호에 부담은 없는가?

10번이라는 등번호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솔직히 부담은 있었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다.

Q. 측면으로 나선 경기도 있고, 최전방에서 투 톱을 이룬 경기도 있다. 위치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가 있는가?

뛰는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항상 생각하고 있다. 어느 위치로 들어가든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평소 훈련에서 측면으로 뛸 때도 있고, 투 톱으로 준비할 때도 있다. 매번 바뀐다. 어떻게 뛸지 몰라서 어느 포지션이든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 팀으로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윤정환 감독이나 코치진이 이동을 선수에게 주로 어떤 점을 주문하는가?

자유롭게 뛰게 해 주신다. 크게 잘못된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중앙에서 뛸 때 그 점을 더 많이 말씀하신다. 측면으로 나오면, 포지션을 지키라는 지시를 하신다. 위치만 잘 지키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Q. 인천은 바로우, 무고사, 제르소 등 리그 최고의 외국인 공격진을 갖추고 있다. 이들과의 플레이는 어떤가?

개인적으로 서로 간의 호흡은 좋다고 생각한다. 팀이 짜놓은 틀이 있다. 그 틀 안에서 뛰고 있어서 많은 말이 안 해도 잘 맞출 수 있다. 워낙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라 함께 패스를 주고받고, 공격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어렵지 않다.

Q. 짧은 패스플레이가 인상적이다. 경기장 안에서 특히 호흡이 잘 맞는 선수가 있는가?

경기장 안에서는 두루두루 다 호흡이 좋다. 그래도 1명을 고르자면, (신)진호 형이다. 경기뿐만 아니라 훈련하면서도 잘 맞는다고 느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진호 형이 공을 굉장히 잘 다루고, 축구도 잘 하셔서 나에게 잘 맞춰 주시는 것 같다.

Q. 인천 선수들 가운데, 특히 배우고 싶은 능력을 지닌 선수가 있다면? 무고사의 골 결정력을 배우고 싶다. 무고사의 마무리는 다른 선수와 확실히 다르다. 훈련에서도 클래스가 다르다.

Q. 이번 시즌 목표가 궁금하다.

팀 목표는 당연히 K리그 승격이다. 나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목표는 우선 부상당하지 않는 것이다. 올해 10~15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싶다. 원래 구체적인 골이나 도움 수치를 목표로 두지 않았었다. 이번 시즌에는 이전과 다르게 공격포인트 목표를 설정했다. 인천의 승격에 보탬이 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한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힘을 많이 얻는다.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팬들과 함께 K리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팬들과 승격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5월은 가정의달, 가족과 함께 경기장 200% 즐기는 TIP

글 = 손지호 UTD기자(sonjiho50@gmail.com)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5월, 가족 혹은 친구끼리 적당한 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려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다가오는 5월에 홈에서 2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구 경기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장을 찾은 혹은 찾을 가족 단위 팬들이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을 UTD기자가 소개한다.



다 같이 편하게, 특성화석 활용하기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만의 매력이 담긴 다양한 특성화석을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부모님 또는 자녀와 동행하면 편안한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천 홈경기장의 특성화석은 크게 3개로 나뉜다.

먼저 E구역 각 코너에 위치한 테이블석과 W구역 프리미엄석이 있다. 테이블석은 S구역과 가까운 '하이네켄석', 북측 광장과 가까운 '피크닉석', 두 곳 모두 있는 '1인 테이블석'까지 3가지 종류가 있다. 자리에 긴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먹거리 가져와 테이블에 편하게 올려놓고 먹으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1인 테이블석'을 제외한 각 테이블은 2인 기준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면 2개의 테이블을 예매해야 한다. '1인 테이블석'은 일반석처럼 4자리를 예매하면 된다.

선수단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W구역 중앙에 위치한 프리미엄석 이용을 추천한다. 프리미엄석은 경기장 입장 터널과 선수단 벤치와 가까운 선수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은 선수단 벤치가 관중석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근처에 앉는다면 자신도 선수단의 일원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석에도 좌석별로 간이 테이블과 음료 컵이 있고 좌석 열 사

이 간격이 일반석보다 넓어 아이가 이동하기 편하고 성인은 다리를 편하게 뉘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팬들에게는 W구역과 S구역 사이에 있는 '라탄 테라스존'을 강력 추천한다. 2023년 11월에 첫 선을 보인 특성화석으로 테이블과 라탄 쿠션이 깔린 특별한 좌석을 제공한다. 2인석부터 8인석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 인원수가 많아도 이용할 수 있다. '테라스존'이라는 말처럼 자리마다 독립된 공간이 주어져 여유 공간이 많아 짐을 두거나 자녀들이 맘껏 돌아다니며 경기를 볼 수 있어 축구경기장에서 피크닉 기분을 낼 수 있다.

친척과 함께 방문하거나 대가족이라면 경기장 2층에 위치한 스카ibox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스카ibox는 독립된 실내 공간과 야외 테라스 좌석이 제공된다. 최대 11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안마의자도 설치되어 있고 스카ibox 이용자에 한해 전용 주차장도 제공된다. 여름엔 시원하게 관람할 수 있고 겨울엔 따뜻한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구단 프로그램으로 추억 남기기

가족과 함께 찾은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프리매치 스타디움 투어'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디움 투어는 홈경기마다 25명의 신청자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 1인 50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경기 당일 공개되는 선수와 함께 경기장 곳곳을 다니는 투어, 선수단 출근길 하이파이브가 있다.

선수에게 평소 궁금했던 걸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선수들이 장소를 소개하며 얹힌 일화들도 스타디움 투어 참여자들에게 들려준다.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 잔디도 직접 밟아볼 수 있다. 입장 터널을 지나 피치 위에 오르면 관중석에선 느낄 수 없었던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웅장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투어 막바지에는 출근하는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로 스킨십도 가능하다.

경기장에 처음 온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팀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경기장 한편에 마련된 20주년 기념 전시실 관람을 추천한다. 전시실은 블루마켓 2층 맞은편에 위치한다. 내부에는 2003년 인천 창단 당시부터 2022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니폼, 응원 도구, 경기 물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구단 역사와 문화 등 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특히 인천을 오랫동안 응원한 팬들로 이루어진 'FAN도슨트'가 직접 전시관 유물에 관해 설명해 줘 관람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도슨트 전시 해설은 블루마켓 1층 VR ZONE 입구에서 현장 신청으로 가능하며 매 경기 4번의 전시 해설이 진행된다. 한 회차에 최대 15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올해 모든 홈경기에서 운영된다.



경기장 내/외부 콘텐츠 도장 깨기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이색 경험을 하고 싶다면 경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구단에서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도장 깨기 해보는 건 어떨까? 홈경기 날 북측 광장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각 후원사의 체험 부스나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경기장에서 먹을 음식들도 광장에 마련된 푸드트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광장 한편에는 구단 대학생 마케터 스포일러가 운영하는 미니 MD샵이 있다. 여기서 간단한 응원도구나 관람 편의를 위한 물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블루마켓에 줄이 길다면 미니 MD샵을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그 옆에는 선수 네임택 키링이 담긴 캡슐 토이머신이 마련되어 있다. 총 10명의 선수의 이름이 국문과 영문으로 키링에 적혀있다. 인천 로고와 인쇄된 전용 코인을 구매해 뽑을 수 있다.

이후 경기장에 들어가면 경기장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E구역 양 끝에는 포토 카드 뽑기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매 경기 무작위로 지정된 선수 포토 카드를 뽑아 간직할 수 있다. 또한 S구역과 하이네켄 펍에서는 인생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각 포지션 별 선수들이 담긴 프레임 활용해 특별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하이네켄 펍에서 매 경기 선수 사인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열리며 참여 선수는 경기 당일에 공개된다. 선수 사인과 더불어 사진 촬영도 가능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경기장 기념품을 간직하고 싶다면 앞서 말한 포토 카드나 인생네컷 사진에 사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펍의 일일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가보길 권장한다.





승의에서 데뷔골 터뜨린 유스 출신 김세훈, 좋은 선수로 팬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싶다

글=지문호 UTD기자(jimh2001102@naver.com)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인천 역사상 12번째 성골 유스 김세훈이 데뷔골을 터뜨렸다. 홍시후의 원발 크로스가 수비 뒤로 돌아뒀던 김세훈에게 정확히 연결되었고, 김세훈은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김세훈은 작년 코리아컵과 리그 무대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올해에도 점차 경기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온 승의에서 데뷔골을 성공시키며 감회가 남달랐을 김세훈을 UTD기자단이 만나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데뷔골이 터졌을 때의 순간을 회상해보면?

우리가 수비를 하고 공을 뺏아서 (홍)시후 형에게 볼이 갔다. 시후 형이 올려줄 거라고 믿고 수비수 맨 끝쪽을 돌고 뒷공간을 파고 있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아벨 코치님과 크로스가 나면 뒤쪽 공간을 노리는 연습을 항상 했는데,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시후 형을 믿고 돌았다. 공이 또 예쁘게 와서, 나에게 소중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골을 넣었던 것 같다.

Q. 평창전 주장 완장이 자신에게 넘어왔을 당시의 기분은 어땠는지
경기장에서는 좀 열렬했었는데, 또 되돌아보면 영광스러웠던 것 같다. (민)성준이 형이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했다. 형들 주장단이 있다. (이)명주 형, (김)도혁이 형, (이)주용이 형, 성준이 형 이렇게 있는데, 성준이 형보다 먼저 완장 찼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고등학교 때 (박)경섭이가 주장을 했었다. 내가 30살이 되더라도 주장 완장을 차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인천 유나이티드

라는 내가 좋아하는 팀을 대표해서 주장을 했다는 게 좋았다.

Q. 평창전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별 하나 달고 싶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인천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나는 항상 작년에도 우승 욕심이 있었다. 1년 차 때도 내가 뛰진 않았지만 우리가 광주 원정 로테이션을 하면서 형들이 전북전 4강 원정을 갔었다. 형들이 이겨서 우리가 같이 우승하고, 형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도 그만큼 힘이 나고 어캐도 올라가고 팀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유스 때부터 응원했던 팀이기 때문에 코리아컵이라든지 리그에서 우승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한다. 아, (K)리그2는 우승이라고 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원래 K2에 있었던 게 아니라 K1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은가.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순서일 뿐이지,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어릴 때 인천 경기장 왔을 때 가장 기억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간 경기가 너무 많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홈에서 울산과 3:3으로 비긴 경기가 있다. 무고사가 해트트릭한 경기가 있는데, 그때 제일 소름이 돋고 기억에 남는다. (2019년 9월 1일 K리그 1 28라운드 울산전 홈경기. 당시 무고사가 후반전에만 3골을 올리며 극적 무승부를 거뒀다.)

Q. 가족들과 경기장에 온 적 있다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안타깝게도 가족들이랑 온 적은 없었다. 부모님 일도 있으시고, 경기장에 사람이 많고 해서 그랬던 것 같다. 다만 중학교 때 w석 1층에서

관람을 했었다. 팬들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을 때여서 더 가까이에서 경기를 봤었다. w석이 바로 s석 옆이라 응원 소리도 엄청 컸다. 그때는 지금보다 팬들도 적었는데 응원 소리가 엄청 컸다. 경기장도 다른 경기장들에 비해 가까우니까 더 설레게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많다.

Q. 어렸을 때부터 인천 경기를 봐오면서 롤모델이나 인상깊었던 선수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선수들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요소들은 무엇인지

중학교 때는 최중환 선수. 내가 이때 사이드백을 봤었다. 이 선수를 보면서 크로스가 그 당시 인천 선수들 중에서 퀄리티가 있고, 6번을 달고 주장도 하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고슬기 선수랑 한석중 선수도 봤었다. 투지 있게 뛰는 모습이 인상적였다. 인천이 또 투지 있게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배웠다. 고등학생 때는 (김)준엽이 형 플레이를 많이 봤다. 준엽이 형은 실수도 없고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걸 닮고 싶었다.

Q. 광성중, 대건고 후배들에게 어떤 부분을 갖고 닦아야 프로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조언하자면?

자기만의 무기가 있으면 좋겠다. 선수들마다 장점이 있다. 무고사는 피니시 능력, 제르소는 빠른 스피드 같은 장점 말이다. 이외에도 엄청난 활동량, 킥력, 드리블 등 자신만의 무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팬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그 선수만의 장점이 있으면 조금은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싶다.

Q. 그렇다면 김세훈의 무기는?

킥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Q. 대건고 동기 박경섭이 올해 입단했다.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서로의 케미는 어떤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다. 나는 사실 경섭이가 프로에 직행하고 내가 못 갈 줄 알고 있었다. 그만큼 경섭이가 잘하는 친구이고, 고등학교 때 믿고 경기를 같이 치렀던 선수다. 중학교 때부터 같이 뛰면서 본 경섭이는 헤딩 능력이 그렇게 좋다. 발밑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헤딩 능력이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경섭이가 중학교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었는데, 상대가 킥을 하면 나는 헤딩을 드려 가지 않았다. 경섭이 덕분에 헤딩 능력이 늘진 않았지만(?), 경섭이가 다 해줘서 나는 그냥 세컨볼만 봤다. 그 정도로 믿고 경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주장 역할을 맡으면서 힘든 역할도 했다. 내가 방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놀았다. 경섭이가 또 집이 멀었기 때문에, 같이 시간 나면 놀고 그랬던 기억이 많다. 경섭이가 선문대에 있을 때 항상 전화하고 그랬다. 너 오면 무조건 올 수 있고 잘할 것 같다고 항상 이야기해줬는데, 와서 이렇게 잘하니까 나도 뿌듯하고 경섭이만큼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

Q. 대건고의 계보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는 않았는지

프로 선수가 어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왔다는 건, 잘해야 스토리가 되고 팬들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잘 하

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계보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잘 하는 선수가 돼서 그런 스토리를 쌓고 싶다.

Q. 윤정환 감독 부임 후의 전술 변화, 적응할 만한지

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좀 전술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다.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빠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동계 훈련 때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Q. 4-4-2 포메이션으로 개편되었다. 선호 포지션이 있다면?

지금은 여러 포지션을 보는 와중에 사이드백을 요즘 안 봐서 지금 그 쪽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요즘은 잘 안 든다. 이외에도 포지션을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살짝 정체가긴 것 같다. 어딜 보면 잘해야 될지 잘할 것 같은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도 뽑자면 (박)승호 형이 뛰는 왼쪽 포워드나 미드필더로 뽑겠다.

Q. 현재 윤정환 감독의 게임모델에서 자신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감독님이 동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를 보면 무고사 옆에는 활동량이 많은 승호 형, 명주 형 옆에 활동량 많게 수비를 더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민)경현이 형이 포지션을 바꿔서 경기를 뛰듯이, 감독님이 나에게도 동계 때 미드필더를 말씀하시면서 (문)지환이 형이나 도혁이 형, 명주 형, (신)진호 형도 계시니까 옆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필요한 선수가 필요하다, 너가 잘해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공 잘 차는 선수들은 우리 팀에 많은 것 같다. 주용이 형도 그렇고 바로우도 그렇고 되게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주고 공간을 메꿔주고 세컨볼을 탈취하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런 부분이 내가 경기를 뛰면 팀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데뷔 때와 비교해서 가장 발전했다고 느끼는 점

템포에 많이 적응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경기를 들어가면 또 잘하고 싶다는 생각과 경기 경험이 부족한 것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 연차로는 메꿔질 수 없는 것 같은 무언가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경험적인 거나 몸으로 템포를 느끼는 건 많이 발전한 것 같다.

Q. 감독님이 어떤 부분을 주로 피드백해주시는지

컨트롤을 먼저 잘 해서 급하지 않게 일단 몸에 잡아놓고 플레이하라는 점, 내가 급하게 플레이 한다는 점을 피드백해주셨다. 그리고 볼 컨트롤하는 방법, 미드필드에서 공간으로 킱을 해줄 때 디테일하게 감독님의 노하우를 전수해주셔서 이런 부분도 좀 실력이 늘어난 것 같다.

Q. 경기 중간에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팬층은?

솔직하게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는 맞긴 하지만 일단 내가 보고 있는 포지션들이 포워드랑 미드필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하는 룰이나 뛰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래서 사이드 왕백이랑 윙 포워드를 볼 때랑은 많이 다르다. 위에서는 좀 폭발적이고 스피린트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미드필드는 지긋이 일정한 속도로 많이 뛰어주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쓰는 근육도 바뀐다. 경기 중에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 부분도 힘든 것 같고, 역할도 아예 다르다 보니 포지셔닝 등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져서 몸도 생각도 좀 힘들다. 그렇지만 나는 또 그런 게 장점이기 때문에 소화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겨내야 할 부분이다. 장점으로 만들려면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라 잘해야 하는 선수가 돼야 해서 고민이 많다.

Q. 경기력 측면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지지 말자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지

일단 경기를 지지 말자는 게 첫 번째다. 좀 더 들어가면 1대1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있다. 흔히 '인분만 하자'는 말들을 하지 않는가. 나는 1대1 싸움에서 이기면 1인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2대1로 도와주면 좋지만 특히 후반전에 이기게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형들 끝까지 커버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1대1로 이기고 들어가자, 내 맨투맨 상대를 이기고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한다.

Q. 경기장 안팎에서 가장 잘 맞는 동료는?

경기장 안에서는 내가 경기를 많이 안 뛰어봐서 누구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거 보면 내가 크로스 올리는 거 좋아하고 무고사가 크로스 받는 걸 좋아한다. 무고사가 좋은 타이밍에 위치하고 있더라. 크로스 올릴 때마다 좋은 위치에 있어줘서 무고사가 좀 그래도 맞았던 것 같다. 경기장 밖에서는 되게 잘 맞는 선수들이 많다. 처음 1년 차 때부터 잘 챙겨주고 지금도 친한 성준이 형이랑 (김)건희 형들도 있고, 제일 친한 친구 경섭이도 있고, 지금 같은 방인 (백)진홍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또 새로 왔지만 동계 때부터 룸메이트를 하면서 진짜 가깝게 지내고 있는 (김)명순이 형도 있다. 그리고 항상 개인 운동을 (김)보섭이 형이랑 같이 한다. 그래서 보섭이 형이랑도 많이 친하고 밥도 같이 먹는다. 그리고 후배 중에는 (백)민규가 잘 따라주고 장난도 같이 치곤 한다. 이렇게 잘 맞는 팀원들이 되게 많다.

Q. 골키퍼에 자신 있는 모습을 가끔 어필했다. 지금도 유효한지

우리가 워밍업 할 때 핸드볼을 했었다. 그때 내 선방 능력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경기 전날에 세트피스 훈련을 하면 내가 골키퍼가 없을 때 들어가곤 한다. 슈팅이 오면 발로 막고 그런다. 확실히 골키퍼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Q. 이런 상황이 오면 안되지만, 만약 작년 마지막 라운드 대구전 원정 경기처럼 필드 플레이어가 장갑을 꺼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자신있게 자청할 건지

내가 바로 말씀드려서 바로 보겠다.

Q. '두 번째' 매거진 인터뷰 소감

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팬분들도 평일 저녁에 많이 경기를 보러 와주셔서, 그리고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인터뷰가 또 나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Q. 팬들에게 한 마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시는 거, 항상 경기장 밖이든 안이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팬분들한테 좋은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고, 올하는 기쁜 날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IUFC
BLUE MARKET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온라인 블루마켓 WWW.INCHEONUTDMARKET.COM